

2010 나고야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 난항 예상

2010년 10월 예정의 제10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를 위한 준비회의가 지난 7월 16일 몬트리얼에서 개최됐으나, 핵심쟁점에 대해 선진국 및 개도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정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됨

- 2010.10월 나고야에서 개최될 제10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의 합의문 작성을 위한 준비회의가 7월 16일 캐나다 몬트리얼에서 개최됐으나, 생물자원 이용의 이익배분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연기됨.
- 금번 준비회의에서 의약품과 식품의 원료인 동식물과 미생물의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인 「나고야 의정서」의 원안이 작성되었으나, 선진국과 개도국의 주장이 대립되면서 원안에는 대량의 유보 조항을 남김.
 - 원안에는 원료의 취득 시 사전에 원산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(사전통보승인제도), 생물자원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원산국에 일부 환원해야 하는 점, 각국이 이익배분을 위해 국내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점 등이 포함됨.
 - 반면, 이익배분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규범을 요구하는 개도국과 기업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려는 선진국간의 대립으로 원안의 31조 이후 항목에서는 대부분 양측의 주장이 함께 기입됨.

표 1. 생물유전자원의 이익배분 관련 주요 쟁점

	개도국	선진국
생물자원의 '파생물' 취급	파생물도 이익배분의 대상으로 함.	파생물은 대상으로 하지 않음.
특허신청 시 생물자원의 기재	원산지의 기재를 의무화	원산지의 기재 의무화를 반대
의정서의 효력	의정서 발효 이전에 반출된 생물자원도 적용	의정서 발효 이후를 대상으로 함.

자료: 読売新聞(2010.7.17). <http://www.yomiuri.co.jp/eco/news/20100717-OYT1T00345.htm?from=any>

- 금번 작업반 회의에는 190개국이 참가했으며, 합의문의 조율을 위해 9월 중순 태국 방콕에서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.
 - 한편, 10월 나고야 당사국 총회에서의 결렬을 회피하기 위해 ‘의정서를 작성한다’는 기본방침만 각국이 확인하고, 상세한 것은 차기 회의로 연기할 가능성도 일부 대두됨.
 - 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정서가 나고야에서 채택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함.
-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국제규범화 논의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필요
- 우리 정부는 국제회의 대응 및 국내제도 정비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며,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제규범에 따라 제품 생산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.

<참고자료>

朝日新聞 및 読売新聞(2010.7.17)